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2993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섬유표현 연구

A Study on Fiber Expression Using Slash Technique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조 시 후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섬유표현 연구

A Study on Fiber Expression Using Slash Technique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조 시 후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섬유표현 연구

지도교수 노 은 희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조 시 후

조시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노 은 희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 vi
ABSTRACT ····· viii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 2

제 2 장 슬래쉬에 대한 고찰 ····· 3

제 1 절 슬래쉬 기법의 정의 ····· 3
제 2 절 슬래쉬의 역사 ····· 4
제 3 절 슬래쉬의 형태 ····· 11
제 4 절 디자인·예술분야의 슬래쉬 ····· 15

1. 의상디자인분야 ····· 16
2. 회화분야 ····· 18
3. 도예분야 ····· 19
4. 섬유예술분야 ····· 21

제 5 절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 ····· 31
제 6 절 재료와 제작과정 ····· 34

1. 도구 ····· 34
2. 재료 ····· 36
3. 제작과정 ····· 42

제 3 장 작품제작 및 분석 ····· 44

제 4 장 결론 ····· 61

참고문헌 ····· 63

그림목차

<그림 1> 기능성1 (시빌의 초상, 1526~1530) ····· 5
<그림 2> 기능성2 (영국남성복, 1629) ····· 5
<그림 3> 막스밀리안 1세의 개선행진 (뒤러, 1514~1516) ····· 6
<그림 4> 헨리 8세의 초상 (1539) ····· 7
<그림 5> 작센공 헨리의 아내 (1530) ····· 7
<그림 6> 슬래쉬와 패드로 장식된 여성복 소매의 여러 모양들 ····· 8
<그림 7> 작센공 헨리의 초상 (1530) ····· 9
<그림 8> 독일 용병 ····· 9
<그림 9> 슬래쉬 모자 (16세기 후반) ····· 10
<그림10> 슬래쉬 신발 (헨리 2세, 1550) ····· 10
<그림11> 단일 수직형 (헨리 2세, 1631) ····· 12
<그림12> 수직형 반복배열 (필립 시드니 경) ····· 12
<그림13> 원(Dot)형 (Buff Jerkin, 16세기 후반) ····· 13
<그림14> 톱니형 (청년의 초상, 1588) ····· 13
<그림15> 장식미1 (라우도니아의 초상, 1560~1565) ····· 14
<그림16> 장식미2 (로버트 두들리의 초상, 1560) ····· 14
<그림17> 사선형 (슬래쉬 머플러) ····· 15
<그림18> 수평형 (슬래쉬 파우치) ····· 15
<그림19> 수직형 (슬래쉬 핸드백) ····· 15
<그림20> 대칭형 (슬래쉬 핸드백) ····· 15
<그림21> 관능미1 ····· 16
<그림22> 관능미2 ····· 16
<그림23> 관능미3 ····· 16
<그림24> 히피 스타일 ····· 17
<그림25> 펑크 스타일 ····· 17
<그림26> 그런지 스타일 ····· 17
<그림27> 공간개념 (Lucio Fontana) ····· 19
<그림28> 공간개념 (Lucio Fontana) ····· 19
<그림29> 공간개념 (Lucio Fontana) ····· 19

<그림30> 공간개념 (Lucio Fontana) ····· 19
<그림31> X-Neck (Peter Voulkos) ····· 20
<그림32> 무제 (Peter Voulkos) ····· 20
<그림33> Callas Rock (Peter Voulkos) ····· 20
<그림34> Head (Daphne Corregan) ····· 21
<그림35> Double Walled Vase (Daphne Corregan) ····· 21
<그림36> 핸드백1 (윤귀옥) ····· 22
<그림37> 핸드백2 ····· 22
<그림38> 파우치 (시즈코 쿠로하) ····· 22
<그림39> 쿠션 (시즈코 쿠로하) ····· 22
<그림40> 바구니 ····· 23
<그림41> 컵받침 ····· 23
<그림42> 재킷 ····· 23
<그림43> 조끼 (시즈코 쿠로하) ····· 23
<그림44> 넝마.9314 (왕경애) ····· 24
<그림45> 열정 (왕경애) ····· 24
<그림46> 천 자르기 시리즈N°1 (요시무라 마사오) ····· 24
<그림47> 미술의상1 (Tim Harding) ····· 25
<그림48> 미술의상2 (Tim Harding) ····· 25
<그림49> Lily (Tim Harding) ····· 25
<그림50> Fuchsia Tulip (Tim Harding) ····· 25
<그림51> Oive (Tim Harding) ····· 25
<그림52> Bargello (Tim Harding) ····· 26
<그림53> Green Fields (Tim Harding) ····· 26
<그림54> 생성 (서동희) ····· 26
<그림55> 심상 (박혜원) ····· 26
<그림56> 꽃담 (이숙정) ····· 27
<그림57> Rose1 (정예금) ····· 27
<그림58> 고요한 빛1 (정예금) ····· 27
<그림59> chosun university (정예금) ····· 27
<그림60> Avakan Rouge (Magdalena Abakanowicz) ····· 28
<그림61> Raumelement, Yellow (Moik Schiele) ····· 28

<그림62> Dove (Lenore Tawney) ····· 29
<그림63> Morning Redness (Lenore Tawney) ····· 29
<그림64> 여명 (이신자) ····· 30
<그림65>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신자) ····· 30
<그림66> 어울림 (이신자) ····· 30
<그림67> 기쁨의 환영 (정정희) ····· 30
<그림68> 즐거운 추억2 (정정희) ····· 30
<그림69> 희미해지는 무늬 ····· 31
<그림70> 돋아나는 무늬 ····· 31
<그림71> 색상배열 유형1 ····· 32
<그림72> 색상배열 유형2 ····· 33
<그림73> 색상배열 유형3 ····· 34
<그림74> 슬래쉬 기법에 필요한 도구 ····· 35
<그림75> 광목의 슬래쉬 표현1 ····· 37
<그림76> 광목의 슬래쉬 표현2 ····· 37
<그림77> 모시의 슬래쉬 표현 ····· 37
<그림78> 노방의 슬래쉬 표현 ····· 38
<그림79> 한지의 슬래쉬 표현1 ····· 39
<그림80> 한지의 슬래쉬 표현2 ····· 39
<그림81> 인조 스웨이드의 슬래쉬 표현 ····· 39
<그림82> 셀로판의 슬래쉬 표현 ····· 40
<그림83> 트레이싱페이퍼의 슬래쉬 표현 ····· 41
<그림84> 신문지의 슬래쉬 표현 ····· 41
<그림85> 천 배열 ····· 42
<그림86> 시침핀 고정 ····· 42
<그림87> 대각선 표시 ····· 42
<그림88> 중신선 박음질 ····· 42
<그림89> 전체 박음질 ····· 42
<그림90> 가윗집 넣기 ····· 42
<그림91> 자르기1 ····· 43
<그림92> 자르기2 ····· 43
<그림93> 다듬기 ····· 43

<그림94> 수정 전 ····· 43
<그림95> 수정 후 ····· 43
<그림96> 완성작 ····· 43
<그림97> 작품 1. 단청의 노래 ····· 46
<그림98> 작품 2. 유년의 빛 Ⅰ ····· 48
<그림99> 작품 3. 유년의 빛 Ⅱ ····· 50
<그림100> 작품 4. 유년의 빛 Ⅲ ····· 52
<그림101> 작품 5. 고백 ····· 54
<그림102> 작품 6. 테이블 리넨 ····· 56
<그림103> 작품 7. 현관매트와 슬리퍼 ····· 58
<그림104> 작품 8. 핸드백 세트 ····· 60

국문초록

현대섬유예술은 전통적이고 고정화된 기법에서 점차 벗어나 타 분야의 예술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표현영역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소재의 응용, 표현기법의 발굴과 개발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섬유작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구정신, 실험정신에 의한 기법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섬유예술의 시대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여 섬유의 재질 변화 및 독특한 부조적인 느낌의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섬유재료뿐만 아니라 모시, 노방, 한지 등 다양한 섬유재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효과를 적극 활용한 조형작품 및 상품의 연구 제작을 통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방법을 확장시키고 섬유표현기법으로서 슬래쉬 기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다양한 재료의 특성과 슬래쉬 표현효과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작품제작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표현재료는 천연섬유에서부터 과학문명에 의하여 탄생한 섬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소재도 가능하였으나 작품제작과정에서 경사와 위사가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조 스웨이드는 사선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질감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계획한 디자인의 슬래쉬 형태는 불가능하였다.

둘째, 슬래쉬 기법의 조형표현은 독특한 섬유의 질감 변화, 부분적인 슬래쉬와 다양한 슬래쉬 형태로 미적, 조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며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셋째, 색상 배열에 따라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슬래쉬 기법의 특성은 모든 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보풀이 잘 일어나는 면 소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아름다운 색채조화를 보였다.

넷째, 상품의 제작은 주로 많이 이용되는 핸드백과 더불어 테이블 리넨, 슬리퍼 등에 이용하여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생활소품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이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을 살려 여러 제품에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슬래쉬 기법에 주로 이용하는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섬유표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사와 위사가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조 스웨이드의 경우 계획한 디자인의 슬래쉬 형태가 불가능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으며 이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표현재료의 다양화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적 시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실용 목적으로 주로 생활소품에 이용하였던 슬래쉬 기법을 문화상품, 의상, 작품 등에 폭 넓게 이용함으로써 섬유표현기법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ABSTRACT

A Study on Fiber Expression Using Slash Technique

Cho, Si-hoo
Advisor : Prof. Noh, Eun-hee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odern fiber art is extending its expressive ground by gradually breaking away from its traditional and manneristic technique and by mutual exchange with other art forms. This was brought possible by practical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its expressive technique by many fiber artists, whose ceaseless search for a new skill and whose spirit and energy brought about a variety of artistic experi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in fiber art, present study focuses not only on those altered fiber materials that use slash techniques for a relief-like look and texture, but also on a variety of basic materials including ramie, Nobang(a fabric made of silk like fabric resembles a sheer stiff muslin), and Hanji(Korean paper).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expressive mode for fiber art, by aiding the manufacture of arts and commodities which substantially emphasize the textural aspect of basic material, and to point out the promising potential of the slash technique.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rough bibliographical research and practical experience of manufacturing artworks utilizing various materials and slash effec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First, from natural to artificial fiber, any type of material can be used for slash technique. However, artificial suede, whose contrasting texture in its warp and weft make oblique lines unstable, is impossible to handle using the slash pattern.

Second, formative expression using the slash technique, with its characteristic textural variation and flexibility in patterning, is aesthetically satisfactory and allows great freedom in expression.

Third, the unique nature of slash to render multiple impressions according to array of colors is commonly found in all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but is most prominently and satisfactorily displayed in cotton, a material that easily raises nap.

Fourth, manufacturing practical merchandise using slash technique can be extended to not only hand bags, a popular item, but also table linens and slippers. Slash technique is versatile enough to be used in these practical yet aesthetically pleasing item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rtistic potentials in fiber expressions not only of those materials that use slash technique but also of other materials. Unfortunately however, in the case of artificial suede, its textural structure prevents it from being made into slash designs. This leaves room for further in-depth analysis and development of basic materials in textile designing.

The slash technique has been reserved mainly for application to practical merchandises. However, a comprehensive adaptation of slash technique into other goods such as cultural products, wardrobe, and artworks may increase its value as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on in fiber ar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현대예술의 경향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개념과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재료의 혼합적 사용과 더 넓고 다양한 곳으로의 예술적 시각을 통하여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섬유예술 또한 전통적 염색기법과 자수, 태피스트리(Tapestry), 펠팅(Felting) 등 고정화된 기법에서 점차 벗어나 타 분야의 예술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표현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감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의 공예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즉, 기존의 단조로운 표현기법과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섬유예술은 평면에서 입체, 설치미술과 환경미술로까지 확대됨으로써 그 다양성과 함께 새로운 예술 장르를 형성하여 조형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섬유예술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소재의 응용, 표현기법의 발굴과 개발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섬유작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구정신, 실험정신에 의한 기법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섬유예술의 시대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섬유의 여러 기법 중 슬래쉬(Slash) 기법을 이용하여 섬유의 재질 변화와 독특한 부조적(浮彫的)인 느낌의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섬유재료뿐만 아니라 모시, 노방, 한지 등의 다양한 재료에 적용하여 그 표현효과를 직접 경험함과 동시에 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효과를 적극 활용한 조형작품 및 상품의 연구 제작을 통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방법을 확장시키고 슬래쉬 기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섬유표현 연구가 본 연구자의 작품 활동에 있

어서 뚜렷한 방향제시를 위한 이정표가 되어 작가적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슬래쉬라는 용어의 정의와 역사에 대하여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그 개념과 유래를 정리한다. 슬래쉬 형태에 대하여 문헌과 그림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며 슬래쉬 기법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와 다양한 형태 배열로 조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예술과 함께 디자인 분야에 드러난 슬래쉬의 형태와 종류, 그 의미를 살펴보며 아울러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슬래쉬 기법에 필요한 도구를 살펴보고 모시, 노방, 한지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슬래쉬 기법으로 인한 섬유의 재질변화와 효과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슬래쉬 기법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그림 자료와 더불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러한 슬래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품제작과정에서 다양한 섬유소재를 이용하여 섬유의 재질변화로 인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과 함께 독특한 부조효과를 강조한 조형작품 및 상품의 연구 제작을 통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방법을 확장시키고 섬유표현기법으로서 슬래쉬 기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 2 장　슬래쉬에 대한 고찰

제 1 절　슬래쉬 기법의 정의

슬래쉬(Slash)란 옷감을 의도적으로 절개(切開)하여 만들거나 찢거나 하여 갈라서 만들어진 절개구(切開口)로써 갈라진 틈 사이로 속옷이나 빨간색 안감 등 대조적인 색상의 옷감이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양쪽 끝이 막히게 된 것을 일컫는다.

슬래쉬의 어원은 고대 에스클리셔(Esclocier)에서 유래되었으며 에스클리셔란 회초리를 치면서 몸에 남는 자국 같은 모양을 옷에 절개하여 절개구를 생기게 한다는 뜻으로 갈라서 완성된 긴 절개의 명칭이 복식 용어로 된 것이다.[1)]

'깊이 베다, 속옷이 보이게 길게 터놓다, 채찍을 휘두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슬래쉬는 장식성이 강한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복식의 표현방법이었다.

그리고 가느다랗고 긴 트임을 나타내는 슬릿(Slit)은 소맷부리, 재킷, 스커트 등에 이용하였으며 주로 좁거나 꼭 맞는 스커트의 앞면이나 뒷면 또는 양옆에 터짐을 주어 움직임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슬래쉬와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 의미는 유사하며 의도적으로 갈라서 만들어진 절개구를 뜻하므로 넓은 의미의 슬래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상에 절개구를 만들었던 것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기능성을 고려한 점도 있었으며 의상에 입체적으로 요철을 강조함으로써 디자인적 효과를 내기 위한 수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불에 달구어진 봉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가위로 절개를 하여 부드러운 속옷의 천이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도록 하였고, 다른 천을 덧대거나 끈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슬래쉬 기법이란 전술(前述)한 의미의 슬래쉬를 이용하는 기법으로써 여러 장

---

1) 유희정, 『Slash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7.

겹친 천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음질 한 다음에 제일 밑의 천을 제외하고 자름으로써 잘게 잘라서 얻는 효과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즉 천을 잘게 자를 때 생길 수 있는 보풀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섬유 표면이 마치 벨벳(Velvet)이나 코듀로이(Corduroy), 타월(Towel)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렇게 생겨난 보풀들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재질감을 보이는 부조적인 느낌이 강조된다. 또한 슬래쉬 기법은 여러 장의 천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고 색상 배열에 따라 그 느낌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제 2 절 슬래쉬의 역사

슬래쉬는 목적에 따라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으로 그 유래를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슬래쉬는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解消)하고 자유스런 동작을 위하여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13세기 초기부터 사람들은 옷을 더욱 꼭 맞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고 14세기 초에 개발된 복식은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자연스런 팔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꼭 끼는 소매를 만들기는 어려운 문제로 해결되기까지에는 몇 세기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재단 기술로는 힘든 일이었으며 자유로운 동작을 위하여 많이 갈라진 틈의 소매를 만든 것이 초기의 시도였다.[2)]

중세시대 의상인 튜닉(Tunic)은 중간 길이(7부)의 몸에 딱 맞는 상의인데 양옆에 슬릿과 슬래쉬를 넣어 활동의 불편함을 없앴으며 중세 말 고딕시대의 몸에 꼭 끼는 소매가 긴 겉옷인 꼬따르디(Cotehardie) 소매 윗부분에도 역시 슬래쉬가 있어서 팔을 그 사이로 내놓음으로써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라는 장식소매의 형태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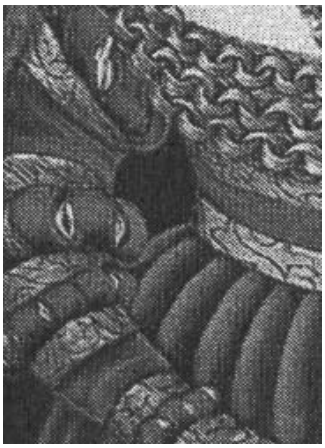
이렇게 슬래쉬는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 부위의 움직임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

2) 이영정, 『르네상스 복식의 미의식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24.

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였다.

<그림1>은 시빌(Sybilla)의 초상 중 소매부분으로 팔꿈치와 손목 부분에 슬래쉬를 넣어 부풀려져 있다. 꼭 끼는 소매는 슬래쉬로 인하여 팔의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높은 기능성을 보인다.

<그림2>는 영국 남성의 더블릿(Doublet)[3]에 나타난 슬래쉬로써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매부분에 긴 수직형의 슬래쉬를 넣어 기능성을 높였다.



<그림1> 기능성1
시빌의 초상, 1525~1530

<그림2> 기능성2
영국 남성복, 1629

장식적 측면에서 보는 슬래쉬의 유래는 1477년 전쟁에서 스위스가 부르고뉴 공국의 왕 찰스에게 승리했을 때 처음 나타났다. 당시 스위스는 많은 양의 실크와 벨벳 등 값비싼 소재들을 소비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병사들은 이것을 잘라 그들의 누더기 옷을 깁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칼자국이 있는 군복을 권위와 용감함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과시하기 위하여 슬래쉬 의상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위스 병사들이 패전병(敗戰兵)들의 옷을 빼앗아 입었을 때 꼭 끼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칼로 군복을 슬래쉬하여 입은 것이 유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3) 더블릿(Doublet)은 '두 겹으로 겹친 것'이라는 뜻으로 14~17세기에 남자가 착용한 상의의 총칭이다.

슬래쉬 스타일은 독일 용병들에 의하여 모방되었으며 뒤러의 작품 '막스밀리안 1세의 개선행진'에서 5명의 독일 병사들 복장은 슬래쉬의 여러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3>. 이후 슬래쉬는 독일인 혈통의 기즈(Guise)가문에 의하여 프랑스 궁정에 소개되어 루이 7세가 헨리 8세의 여동생과 결혼할 무렵에 영국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서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림3> 막스밀리안 1세의 개선행진
뒤러, 1514~1516 (출처: 서양복식사)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재위기간에 남성들의 옷은 부피가 크고 호사스러워졌는데 홀바인(Holbein)[4] 파(派)가 그린 헨리 8세의 초상<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블릿은 불룩하게 패드를 넣었으며, 그 안에 입은 멋진 흰색 셔츠가 드러나 보이도록 슬래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헨리의 값비싼 옷들의 경우에는 슬래쉬한 부분에 보석과 함께 화려한 자수를 채워 넣어 장식하였다.

4)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바젤, 북이탈리아, 런던 등지에서 명성을 얻은 뒤 영국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되었으며 특히 초상화에 뛰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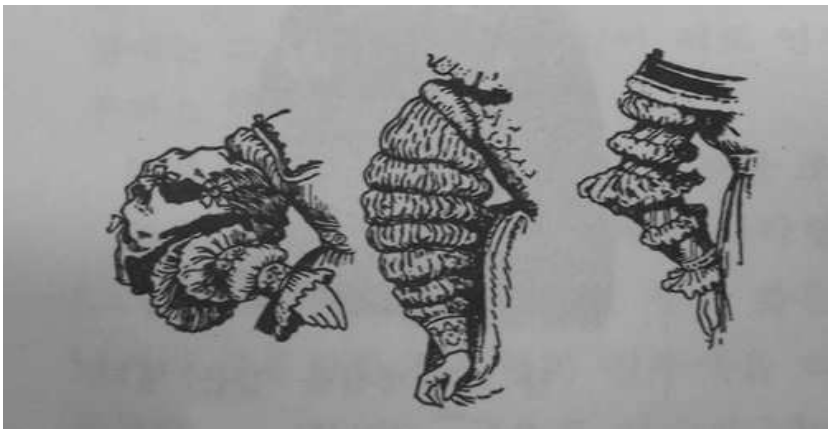
슬래쉬는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에도 사용하였으나 남성복처럼 많은 슬래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스커트에 패드가 들어있지 않아 남성복의 바지와 달리 속을 채워 넣을 수 없었고 스커트에 사용하여도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복의 슬래쉬는 소매의 팔꿈치에 사용하여 활동을 편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루카스 크라나크(Lucas Cranach)가 그린 작센공 헨리의 아내<그림5>의 초상에서도 드레스 소매 팔꿈치에 역시 슬래쉬가 있어 관절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헨리 8세의 초상
1539 (출처: 세계패션사)

<그림5> 작센공 헨리의 아내
1530 (출처: 세계패션사)

<그림6>은 슬래쉬와 패드로 장식된 여성복 소매의 여러 형태들로 (가)는 르네상스 전반기 여성복, (나)는 1580~1590년경 여성복, (다)는 1520년경 중류부인 의

상의 소매부위에 나타난 슬래쉬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장식성이 강조되어 있고 슬래쉬와 함께 패드를 넣어 부풀려져 있다.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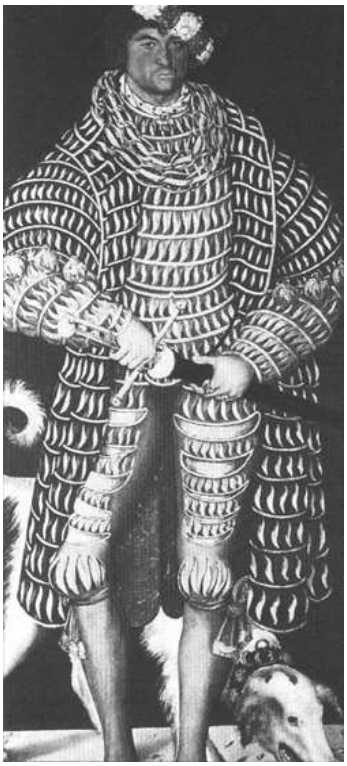
<그림6> 슬래쉬와 패드로 장식된
여성복 소매의 여러 모양들

슬래쉬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과는 달리 점차 복잡해지고 과장되어서 의복 전체에 무늬처럼 뒤덮이게 되었고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장식 방법이 되었다. 특히 1520년부터 1535년 사이에 널리 유행되었고 17세기 중기까지 의복에 남아 있었다.[5] 또한 독일에서는 남성의 더블릿과 반바지에 수백 개의 슬래쉬를 넣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슬래쉬가 유행하였다. 작센공 헨리의 초상<그림7>에서 공작의 복장은 의복 전체에 슬래쉬가 무늬처럼 뒤덮여 있어 그 당시 독일 옷의 사치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용병 <그림8>의 모습에서도 꽃형과 사선형 등 다양한 모양의 슬래쉬가 의복 전체에 무늬처럼 펼쳐져 있다.

부와 권력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해진 신흥귀족을 포함한 귀족층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방향으

5)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94), p.161.

로 발전하게 되었다. 호화로운 직물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금, 은 등의 보석을 복식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6)]



<그림7> 작센공 헨리의 초상
1530 (출처: 세계패션사)

<그림8> 독일 용병

이러한 슬래쉬는 유럽에 널리 퍼지면서 처음부터 새 천에 구멍을 뚫는 것이 심하게 유행하였고 그 호화로움이 장관(壯觀)을 이루면서 사치와 낭비가 심하여 슬래쉬 금지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유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전히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적 요소로써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와 신발, 장갑에까지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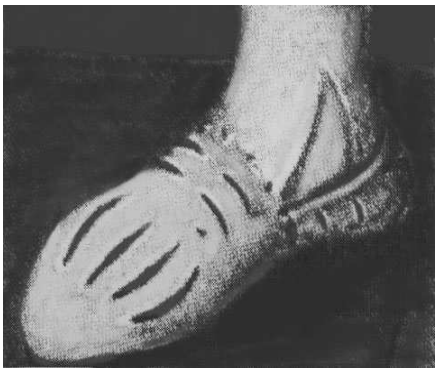
<그림9>의 16세기 후반 슬래쉬 모자는 비대칭의 나뭇잎형 슬래쉬를 헤링본

6) 박정우, 『르네상스 복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41.

(Herringbone)[7]형태로 배열하였고 나뭇잎형의 슬래쉬를 통하여 대조적인 색상의 안감이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수직형과 수평형의 슬래쉬를 보이는 신발<그림10>은 슬래쉬 된 구멍을 통하여 구두 속에 신은 스타킹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였다.

장갑에 사용된 슬래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었을 때 반지가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 부분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의 관절부분까지 슬래쉬 하였고, 열 손가락 전부 슬래쉬한 예도 있다.[8]

<그림9> 슬래쉬 모자
16세기 후반



<그림10> 슬래쉬 신발
헨리 2세, 1550

이렇게 슬래쉬 사용이 르네상스 시대에 절정이었던 이유는 중세문화가 신에 대한 찬양, 자연복종의 미덕을 구가(謳歌)한 반면 르네상스 문화는 자연구가, 인간본성의 자유로운 발로(發露), 개인주의의 인식 등을 사상의 근원으로 삼으며 폐쇄적인 중세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 시대의 사회적 영향 때문이었다. 중세의 견고하고 금욕적인 복식양식은 개인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정신적 해방감으로 풍부한 창조 의욕을 불러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은 의복을 통하여 새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였고 지나친 과장은 인공적인 미를 창출하

---

7) 헤링본(Herringbone)은 '청어의 뼈'라는 의미로 사선무늬 직물의 일종이며 그와 닮은 조직 효과를 가진 옷감의 총칭이다.

8) 박정우, 앞의 책, p.41.

게 만들었다. 또한 이 시대의 직물공업과 염색가공의 발달은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진보하여 다양한 직물과 색채를 낳게 하였으며 의복은 점차 낭만적이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 슬래쉬 스타일의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초기 인체의 활동에 자유로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슬래쉬는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장식방법으로 르네상스 복식을 특징짓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슬래쉬는 오늘날에 이르러 현대의상과 예술분야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생활소품에도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절에서 살펴보겠다.

제 3 절 슬래쉬의 형태

자유로운 동작을 위한 목적으로 초기 복식에 사용하였던 슬래쉬는 군복에 생긴 칼자국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수직형, 수평형, 사선형 등이 주로 많이 쓰였으며 이 형태를 단순히 단독 배치하는 방법과 함께 반복 배열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하였다.

헨리 2세의 초상에서 그가 입은 더블릿은 단일 수직형태로 소매부분에 패드를 넣어 과장되게 부풀어지게 하고 일자형의 긴 슬래쉬를 넣어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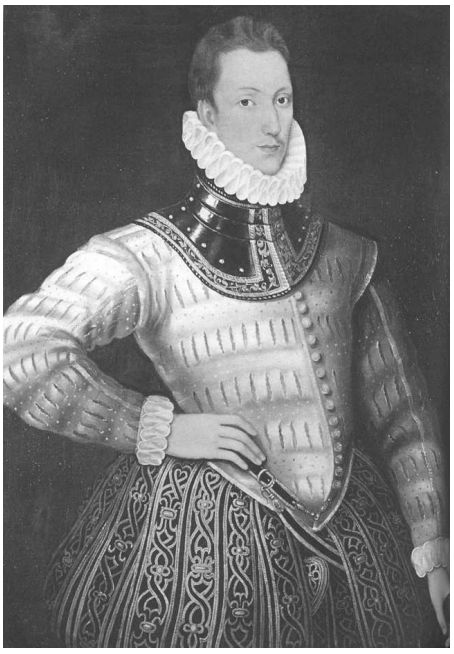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9]의 초상에서 그가 입고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더블릿은 길고 짧은 직선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반복 배열되어 있으나 그 표현형태는 대체로 단조로운 편이다<그림12>.

이렇게 단순한 표현형태는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며 슬래쉬가 기능성을 위한

9)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정을 모신 시종으로 문무에 뛰어나고 르네상스가 낳은 영국신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전사하였다.

목적 이외에 장식의 목적이 점차 강조되면서 꽃잎형, 나뭇잎형, 원형, 십자형, 톱니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슬래쉬로 변하였다.

<그림11> 단일 수직형
헨리 2세, 1631



<그림12> 수직형 반복배열
필립 시드니 경 (출처: 세계패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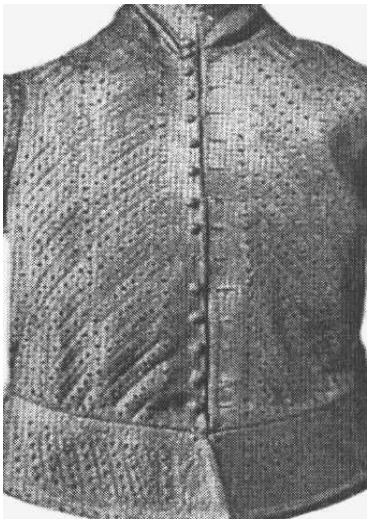
<그림13>의 16세기 후반 가죽 조끼는 원형의 슬래쉬 형태가 대칭으로 균일하게 반복 배열되어 있어 가죽의 표면 변화를 통하여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14>의 남성 상의는 톱니형의 슬래쉬가 짧은 지그재그 형태로 의상전체에 수놓듯이 반복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슬래쉬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슬래쉬의 표현방법은 슬래쉬의 갈라진 틈 사이로 화려하고 대조적인 색상의 천이나 흰색의 슈미즈(Chemise)[10] 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속과 겉감을 밀착시키면서 속에 입은 옷에 패드를 넣어 팽창시키고 슬래쉬 구멍을 통하여 속의 옷을 보이게 하는 방법, 긴 헝겊조각(Panes)[11]을 이용한 슬래쉬로 겉

10) 영어의 셔츠에 해당되며 영어권에 들어오면서 여성용 긴 통옷만을 특별히 슈미즈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으나 원래는 남녀가 입는 내의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 조각만 부풀려 조각 사이로 속의 옷이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12] 또한 슬래쉬의 가장자리를 자수로 장식하고 보석을 달아 화려한 장식미를 강조하였다.



<그림13> 원(Dot)형
Buff Jerkin, 16세기 후반

<그림14> 톱니형
청년의 초상, 1588

<그림15>의 라우도니아(Laudonia) 초상은 사선형과 수직형의 슬래쉬가 단순 배열되어 있으나 슬래쉬의 가장자리를 진주로 장식하여 화려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림16>의 로버트 두들리(Robert Dudley) 초상에는 몸통 부분에 긴 수직형의 슬래쉬와 소매 부분에 수평형의 슬래쉬가 있고 그 사이의 중간 매듭은 금색 단추로 달아 높은 장식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화려한 형태의 슬래쉬는 독일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독일인은 대칭적인 배열로 슬래쉬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슴과 등에 십자, 별, 화환 등

---

11) 촘촘하고 평행으로 된 긴 리본 같은 선을 위와 아래만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대조적인 색, 밝은 색의 속옷이 갈라진 틈을 통하여 보이도록 한 슬래쉬의 일종.

12) 이정옥, 『서양복식사』(서울:학문사, 1978), p.196.

의 완전한 문양을 만들어 배열하기 시작하였다.[13] 그리고 단일의 반복배열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혼합배열로 점차 화려하게 변하였다.

<그림15> 장식미1
라우도니아의 초상, 1560~1565

<그림16> 장식미2
로버트 두들리의 초상, 1560

섬유표현기법에서 쓰이는 슬래쉬의 형태는 바이어스의 사선형으로 힘이 있고 강한 느낌을 주어 많이 쓰이지만 자유로운 곡선형으로 우아하고 유연한 느낌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이어스의 사선형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천을 자를 때 생길 수 있는 올 풀림을 방지하면서 자연스러운 보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면 수직형과 수평형의 슬래쉬 형태가 될 수 있다.

슬래쉬 기법은 주로 핸드백, 파우치, 쿠션 등의 생활소품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사선형<그림17>과 함께 수평형<그림18>, 수직형<그림19>이 대부분이며 사선의 대칭형<그림20>을 사용하여 변

13) Max Von Boehn. 이재원 역, 『패션의 역사』(서울:한길아트, 1998),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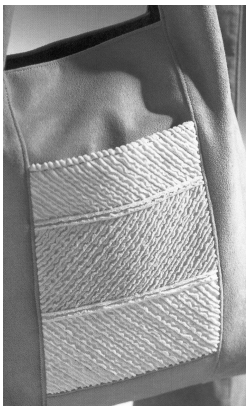
화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형태는 대체로 단조로운 편이며 선을 강조하는 부분적인 슬래쉬나 역사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슬래쉬의 혼합배열을 응용한다면 종래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바이어스를 이용하지 않고 슬래쉬함으로써 생기는 올의 풀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직선과 곡선, 수직과 수평 등의 혼합배열을 다각도로 활용한다면 작품의 조형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17> 사선형 슬래쉬 머플러

<그림18> 수평형 슬래쉬 파우치

<그림19> 수직형 슬래쉬 핸드백



<그림20> 대칭형 슬래쉬 핸드백

제 4 절 디자인·예술 분야의 슬래쉬

과거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복식의 장식 방법이었던 슬래쉬 형태는 현대 의상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예술분야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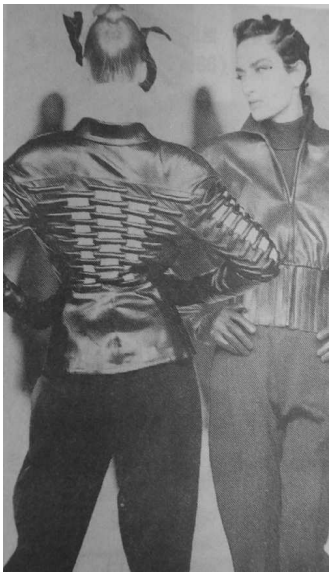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각 분야에 드러난 슬래쉬의 유형과 함께 슬래쉬를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와 함께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의상디자인분야

현대 의상에서 선보이는 슬래쉬는 과거 의상에서 쓰였던 슬래쉬의 형태를 그대

로 표방하기도 하지만 보다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과거의 의상이 기능성과 장식성에 그 목적을 두며 슬래쉬 사이로는 속옷이나 안감이 보이도록 했던 것에 반(反)하여 현대 의상의 슬래쉬는 등이나 가슴, 팔과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관능미를 보여주며 보다 입체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그림21, 22, 23>. 그리고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슬래쉬를 통하여 신체의 일부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의복과 인체의 새로운 조형미를 추구하고 높은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그림21> 관능미 1



<그림22> 관능미 2

<그림23> 관능미 3

그러나 히피(Hippie), 펑크(Punk), 그런지(Grunge)등의 스타일에서 보여주는 슬래쉬는 장식성을 강조한 관능미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반항하는 일종의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히피스타일과 펑크스타일은 실업률의 증대와 경제적인 침제로 인하여 나타났으며 그들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체감을 추구하였으며 규격화되고 경직된 사회,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관습을 거부하며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성과 개성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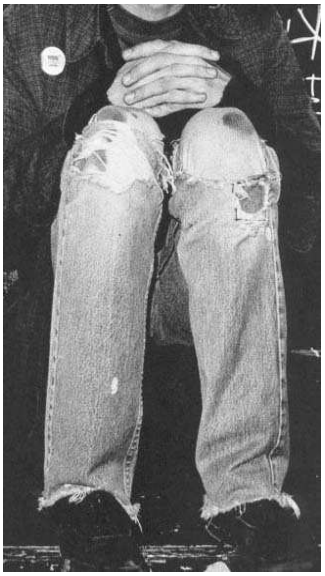
히피(Hippie) 스타일<그림24>의 특징은 엉덩이에 꼭 맞으면서 바지 끝이 넓게 펴지는 판탈롱과 꽃무늬 셔츠, 프릴이 장식된 블라우스와 슬래쉬 된 조끼를 많이 입었으며 히피 스타일은 때로는 남루하게 보인다.

펑크(Punk) 스타일<그림25>은 찢어진 티셔츠와 바지를 주로 착용하며 가죽 액세서리와 함께 안전핀, 면도기 등의 액세서리로 반항적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패션을 보인다.

그런지(Grunge) 스타일<그림26>은 낡아서 해진 듯한 의상과 찢어진 의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특별한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24> 히피 스타일

<그림25> 펑크 스타일



<그림26> 그런지 스타일

히피, 펑크, 그런지 스타일은 반문화적 시대정신을 보이며 그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입는 청바지를 찢거나 구멍을 내기도 하여 올을 풀어 너덜너덜하게 해서 입었으며 이렇게 찢겨진 청바지의 슬래쉬 표현은 그들 안에 잠재된 파괴와 폭력을 상징하며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고 있다.

2. 회화분야

194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표한 백(白)의 선언을 통하여 공간주의(空間主義)[14]를 제창한 이탈리아의 화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작품들은 슬래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공간을 가로질러 빛나는 형태를 새로운 미학의 형성이라 하여, 운동·색채·시간 그리고 공간, 즉 네온의 빛·텔레비전·건축 등에서 볼 수 있는 4차원적 존재를 현대의 예술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캔버스에 구멍을 뚫거나 칼로 찢어서 수직형의 슬래쉬와 원(Dot)형의 슬래쉬를 만들었다.

1958년에는 그의 대표적 공간개념의 표현방법인 찢기가 시도되며 단색으로 칠한 캔버스를 예리한 칼날을 이용하여 찢기를 시도함으로써 공간주의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캔버스 형태도 기존의 사각 틀에서 벗어나 난(卵)형, 삼각형, 오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전통적인 캔버스의 기능과 형태를 부정(否定)하는 창조적 표현으로 표현영역을 확대시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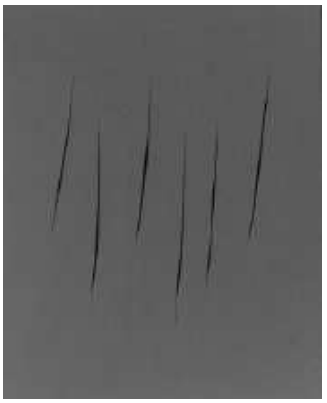
공간개념(Concetto Spaziale)이라는 제목이 붙은 폰타나의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에 칼자국을 내어 수직형의 슬래쉬<그림27, 28>처럼 벌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대담하고 힘찬 선들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구멍을 뚫은 원형의 슬래쉬<그림29, 30>로 공간을 인식하게 만들며 추상화나 구상화의 구분을 넘어서서 캔버스의 표면을 3차원으로 공간화 시키며 화면을 지배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폰타나의 작품들은 예리한 칼날의 찢기와 뚫린 구멍으로 인하여 긴장감과 함께 강한 역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공허의 이미지로 평면의 캔버스를 하나의 입체로 만들어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보이는 가변성(可變性)까지 그림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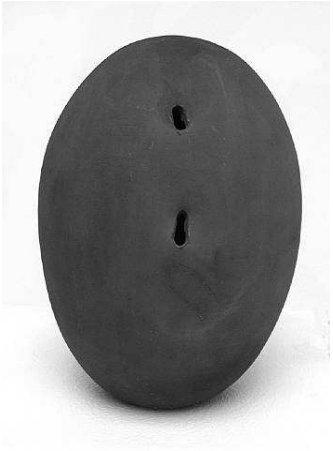
---

14) 공간주의는 구체미술의 사상에 다다이즘의 진보적·파괴적 정신을 결합한 것으로 회화와 조각을 구분하는 고전적인 구별에서 그 의미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간개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기초를 두었으며 1960년대 유럽의 전위예술운동에 영향을 미친 예술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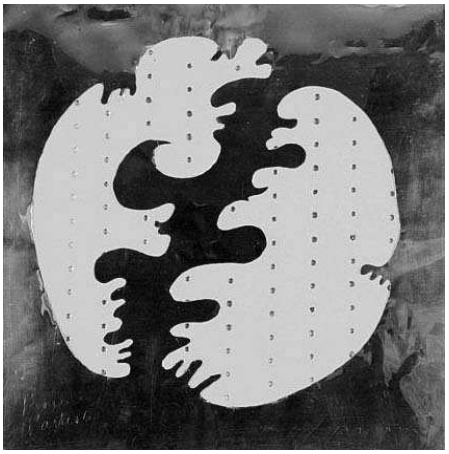
<그림27> 공간개념, L. Fontana
15.5 × 17 × 23 ㎝, 1965



<그림28> 공간개념, L. Fontana
85 × 71 ㎝, 1964~1965



<그림29> 공간개념, L. Fontana
34 × 20 ㎝, 1962



<그림30> 공간개념, L. Fontana
48 × 48 ㎝, 1965

3. 도예분야

화가로 출발하여 회화와 도자를 접목하며 도예를 순수 예술의 범주(範疇)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미국의 도예가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는 실용성을 배제하고 회화성이 강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도기 제작방법이 아닌 작품 형태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고, 찢는 등의 즉흥적이고 순간적

인 감각으로 작업을 이끌어 직관적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그가 영향을 받은 추상 표현주의의 즉흥성과 작업과정을 중시하며 새로운 도예 세계를 보여주었다.

볼커스의 많은 작품들은 구멍을 내거나 자르고 찢는 슬래쉬 방법으로 질감의 변화를 보여주며 특히 그의 작품 X-Neck<그림31>에서는 거칠고 날카로우면서 역동적인 느낌의 슬래쉬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는 이처럼 날카롭고 정확한 슬래쉬가 아닌, 작품 형태에 구멍을 뚫어 비어있는 공간을 암시하는 슬래쉬를 때로 사용하며 전통에서 벗어난 도예방식으로 그만의 고유한 회화적이고 조형적인 특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였다<그림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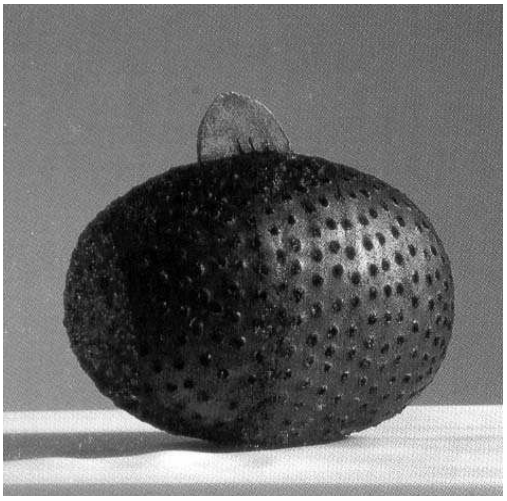
<그림31> X-Neck
P. Voulkos, 1990

<그림32> 무제
P. Voulkos,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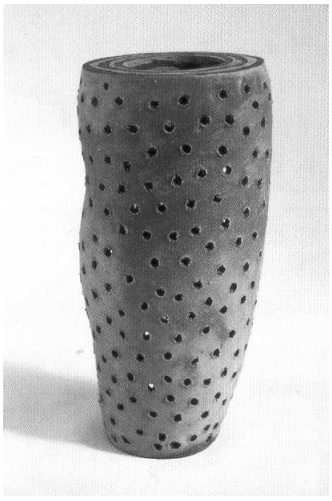
<그림33> Callas Rock
P. Voulkos, 1960

프랑스의 도예가 다프네 코레강(Daphne Corregan)의 작품<그림34, 35>에서는 원(Dot)형의 슬래쉬 형태가 작품 전체에 수놓듯이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도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슬래쉬의 형태는 정확하고 날카롭게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어있는 공간이나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념 내 사고를 마음껏 거부하는 파괴적 감성을 보이는 동시에 내적 감성의 절제된 표현미학을 보

여주기도 한다.



<그림34> Head, D. Corregan, 2001



<그림35> Double Walled Vase
D. Corregan, 2002

4. 섬유예술분야

슬래쉬 기법은 퀼터(Quilter)들에 의하여 주로 핸드백이나 파우치, 쿠션 등의 생활소품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재킷<그림42>이나 조끼<그림43> 등의 의상에도 이용하고 있다.

<그림36>은 사선으로 이등분하고 슬래쉬 방향을 달리하여 경쾌한 느낌이 드는 슬래쉬 핸드백으로 강렬한 꽃무늬가 슬래쉬 기법으로 인하여 부드럽게 변하였으나 그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37>의 슬래쉬 핸드백 또한 사선의 슬래쉬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잔잔한 꽃무늬는 섬유의 재질변화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다.

<그림38>의 파우치는 단색의 슬래쉬로 색상의 변화를 볼 수 없으나 카드에서 볼 수 있는 하트와 클로버 문양을 진한 색상으로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39>의 쿠션은 슬래쉬 기법으로 인한 면섬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과 함께 광택이 흐르는 섬유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대조적인 섬유의 재질을 볼 수 있

으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림36> 핸드백1, 윤귀옥

<그림37> 핸드백2

<그림38> 파우치, 시즈코 쿠로하

<그림39> 쿠션, 시즈코 쿠로하

<그림40>의 슬래쉬 바구니는 갈라진 틈을 가로지르는 박음질로 바구니를 튼튼하게 만들어 슬래쉬 기법의 미를 잃지 않는 가운데 실용성을 높였다.

<그림41>은 사과형태의 슬래쉬 컵받침으로 밝고 산뜻한 느낌이며 전체를 슬래쉬 하지 않고 사과꼭지 부분은 남겨둠으로써 탐스러운 사과를 연상시키고 대조적인 섬유의 재질로 슬래쉬 기법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소품이나 의상들은 독특한 재질감을 강조하여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특히 의상에 이용하는 경우는 아름

다움과 더불어 여러 겹의 옷을 입은 듯하여 방한용으로 실용성 또한 높다.

<그림40> 바구니

<그림41> 컵받침

<그림42> 재킷

<그림43> 조끼, 시즈코 쿠로하

섬유예술분야에서는 국내작가 왕경애에 의하여 구성적인 강렬한 색상대비가 인상적인 가운데 천을 찢고 기운 형태로 질감의 대비를 강조한 넝마처럼 보이는 작품들<그림44, 45>과 일본의 요시무라 마사오의 천을 찢고 자른 입체적인 작품<그림46>에서 슬래쉬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일반적인 평면의 섬유표면 구조는 천을 찢고 기운 가운데 여기저기 너덜거리고 걸쳐지면서 공간적 깊이로 역동적인 공간연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44> 넝마.9314, 왕경애, 290×190㎝, 1993

<그림45> 열정
왕경애, 67×69×20㎝, 1995

<그림46> 천 자르기 시리즈N°1
요시무라 마사오, 1980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슬래쉬 형태를 보이는 작품으로 전형적인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전형적인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은 미국의 작가 팀 하딩(Tim Harding)에 의하여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국제미술의상전>을 통하여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화려한 미술의상을 선보였다. 그의 미술의상들은 슬래쉬 기법으로 인하여 표면 질감이 강조되어 있고 옷이 아닌 한편의 회화작품을 보는 듯 높은 예술성을 보인다<그림47,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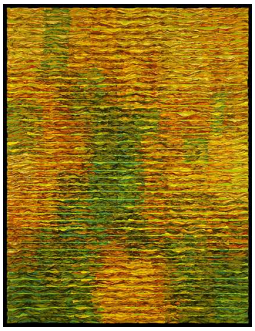
<그림47> 미술의상1
Tim Harding, 1995

<그림48> 미술의상2
Tim Harding,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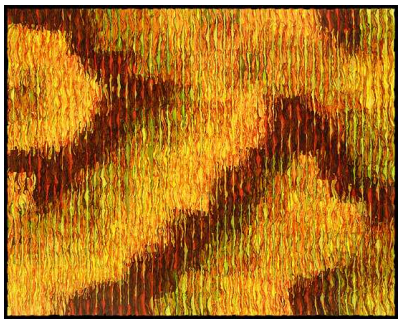
그는 또한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여 섬유로 만든 다양한 벽 그림(Wall Piece)들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슬래쉬 기법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사선의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형, 수직형의 직선 슬래쉬로 적극적이며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자유롭고 경쾌한 곡선의 슬래쉬 형태를 통하여 유연한 가운데 능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49~53>. 그리고 이러한 슬래쉬 형태는 모두 슬래쉬 기법을 통하여 색채조화와 함께 높은 부조효과를 보여준다.

<그림49> Lily
Tim Harding,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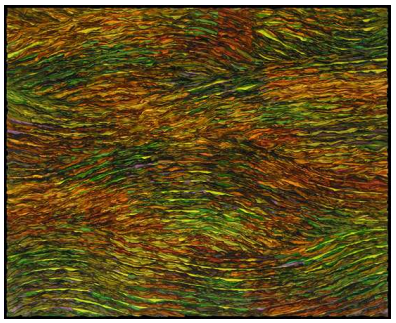
<그림50> Fuchsia Tulip
Tim Harding, 2003



<그림51> Olive
Tim Harding, 2004



<그림52> Bargello
Tim Harding,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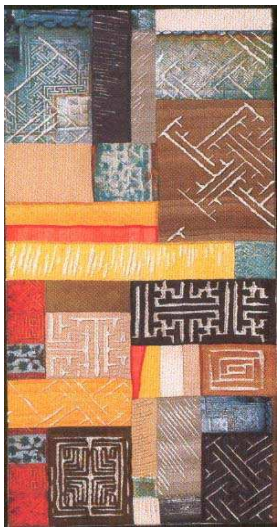
<그림53> Green Fields
Tim Harding, 2005

국내에서는 섬유조형작품에 슬래쉬 기법이 이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지만 다른 섬유표현기법과 함께 슬래쉬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부조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몇몇 섬유작가들에 의하여 나타나며<그림54, 55>, 조선대학교 55회 졸업작품전에 꽃담의 전통문양을 부분적으로 슬래쉬하여 선을 강조하고 슬래쉬 기법의 부조효과를 높인 학생의 작품이 선보였다<그림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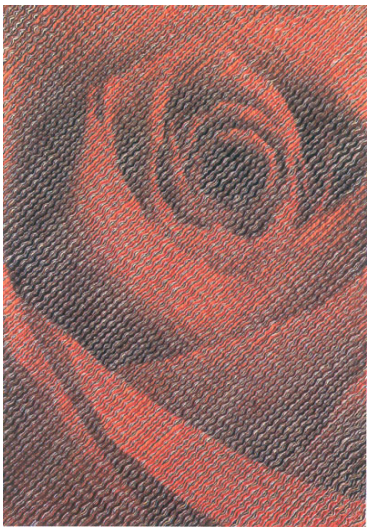
그리고 최근에 섬유작가 정예금에 의하여 슬래쉬 기법만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작품이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슬래쉬 기법의 활용범위를 넓혀 나아가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전사염 작업을 DTP(Digital Textile Printing)로 옮긴 후에 사선의 전체적인 슬래쉬로 강한 역동성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일정한 리듬감을 보여준다<그림57, 58, 59>.

<그림54> 생성, 서동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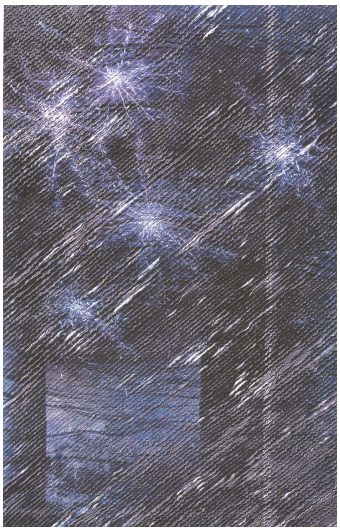
<그림55> 心像, 박혜원, 2005



<그림56> 꽃담, 이숙정
60×130㎝, 2005



<그림57> Rose Ⅰ, 정예금
53×73㎝, 2004



<그림58> 고요한 빛Ⅰ, 정예금
140×240㎝, 2005

<그림59> chosun university, 정예금, 300×14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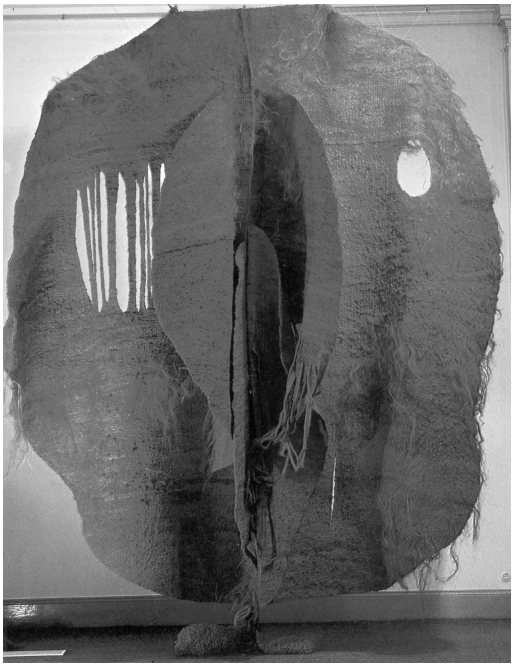
이밖에 슬래쉬는 태피스트리(Tapestry)직의 기법에서 슬릿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슬릿은 벌어진 틈 또는 떨어진 조직으로 태피스트리직에는 위사가 부분적으로 오고 가지만, 패턴에 세로 방향의 직선이 있으면 위사가 왕복하는 데 따라 슬릿이 생기며 이것은 태피스트리가 갖는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15]

15) 한선주, 『수직』(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2),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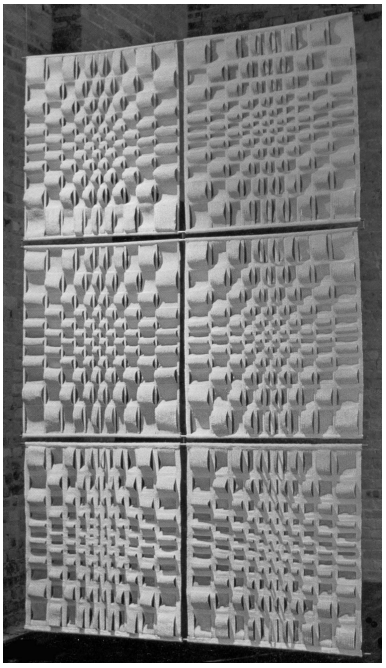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갈라진 슬릿의 틈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슬릿을 피하지만 장식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슬릿을 활용한 태피스트리 작업을 행하기도 한다.

독자적인 섬유예술표현의 접근방법을 보여주었던 막달레나 아바카노(Magdalena Abakanowicz)의 거대한 입체적인 태피스트리 작품<그림60>에서 슬릿은 새로운 공간을 암시하는 형태를 보이며 표현의 다원화를 이끌어 내며 무한한 조형 가능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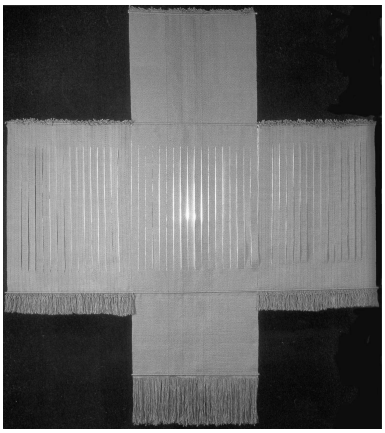
르노어 타우니(Lenore Tawney)와 모익 쉴레(Moik Schiele)의 슬릿 태피스트리(Slit Tapestry) 작품들은 슬릿의 갈라진 틈으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평면의 화면은 다층적인 공간 구조를 보이며 높은 부조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림61, 6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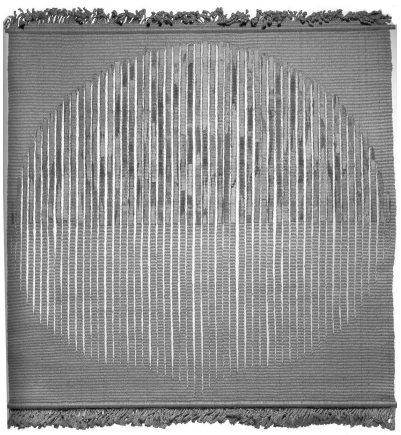
<그림60> Abakan Rouge
M. Abakanowicz, 1969



<그림61> Raumelement, Yellow
M. Schiele,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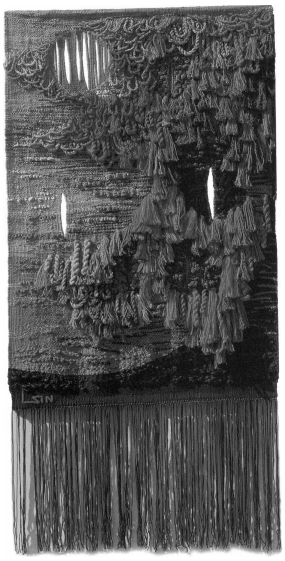
<그림62> Dove
L. Tawney,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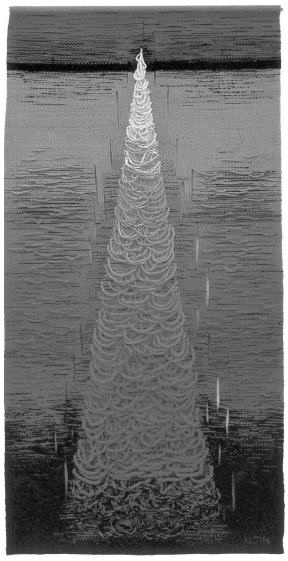
<그림63> Morning Redness
L. Tawney, 1974

또한 슬릿 태피스트리는 국내 작가 이신자에 의하여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작품들도 슬릿으로 인하여 공간감을 갖는 동시에 연결되지 못한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평면의 태피스트리 조직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그림64, 65, 66>. 그리고 정정희의 작품들은 슬릿을 통한 적절한 공간의 삽입과 늘어뜨린 직조물의 연결에 의한 자연스러운 주름, 늘어지는 곡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벌어진 틈은 조명에 의하여 생기는 그림자로 흰 벽에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공간에 대한 작가의 높은 이해와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조각을 전공했던 작가의 이력 때문인지 어딘가 모르게 조각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그만의 독특한 조형어법으로 높은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그림67, 68>.

이렇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피스트리에서 보이는 슬릿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슬래쉬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암시하는 동시에 높은 부조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갈라진 틈은 미묘한 운동감을 표출하며 작품 안에서 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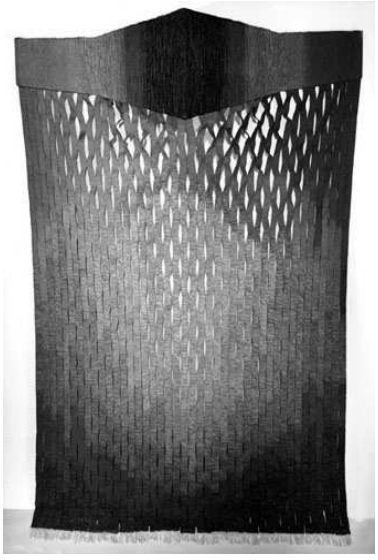


<그림64> 여명
이신자, 110×240㎝,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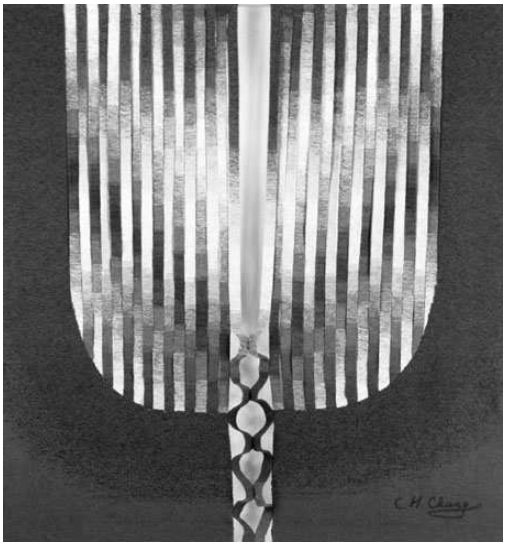


<그림65>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신자, 75×150㎝, 1980

<그림66> 어울림
이신자, 195×320㎝, 1981



<그림67> 기쁨의 환영
정정희, 192×260㎝, 1986



<그림68> 즐거운 추억2
정정희, 150×150㎝, 1989

제 5 절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

섬유예술에서 기법은 섬유 표면의 질감과 함께 작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슬래쉬 기법은 입체적인 요철로 인하여 독특한 섬유의 질감 변화를 볼 수 있고,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섬유의 감촉이 현저하게 변화함으로써 뚜렷한 시각적, 촉각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슬래쉬 기법의 가장 큰 특성이다. 또한 여러 장의 천들이 잘렸을 때 생기는 보풀의 혼합으로 인하여 색채의 조화가 아름답고, 이용하는 천의 색상배열에 따라 그 느낌이 현저하게 달라지며 시각적인 혼색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단색의 슬래쉬 표현은 색상의 변화와 화려함은 볼 수 없으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림69>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날염 원단의 선명했던 무늬가 회색의 배색 천을 이용한 슬래쉬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희미해지고 있다.

<그림70>에서 동일한 색상의 날염 원단은 검정색의 배색 천으로 선명했던 무늬가 슬래쉬 표현을 통해서도 그대로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슬래쉬 기법에서는 가장 위에 사용하는 천이 동일하더라도 배색 천에 의하여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색상배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림69> 희미해지는 무늬

<그림70> 돋아나는 무늬

(출처: ストレ―トスラツシュキルトの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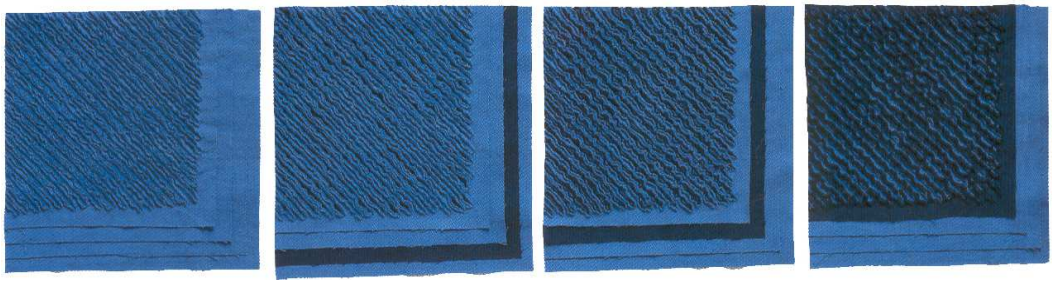
<그림71>의 색상배열은 파란색 천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단일의 파란색 천만을 슬래쉬한 경우와 남색 천 1장의 위치를 각기 달리하여 배열함으로써 나타나는 색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유형은 4장의 동일한 파란색 천을 배열한 경우로 색상의 변화와 화려함은 볼 수 없으나 슬래쉬 기법을 통한 벨벳과 같은 섬유의 재질 변화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나)유형은 파란색 천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남색 천 1장과 파란색 천 2장을 배열하여 뚜렷한 색상의 변화는 볼 수 없으나 단일 색상의 슬래쉬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유형은 파란색 천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남색 천 1장과 파란색 천 2장을 배열하여 슬래쉬한 경우로 인접한 파란색과 남색의 보풀이 섞여 뚜렷한 색상변화를 볼 수 있다.

(라)유형은 남색 천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파란색 천 3장을 그 아래 배열하여 색상대비가 돋보이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남색이 밝은 파란색으로 인하여 경쾌한 느낌이 든다.



(가) (나) (다) (라)

<그림71> 색상배열 유형1

<그림72>의 색상 배열은 가장 위에 있는 천은 갈색을 기본으로 하고 배색되는 천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색상의 조화와 함께 시각적인 혼색을 느낄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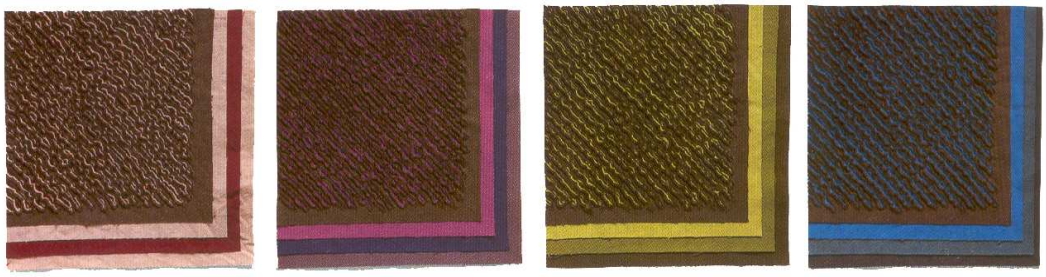
이렇게 색채는 인접하는 색들에 의하여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가)유형은 갈색 천 아래 분홍색, 어두운 빨간색과 분홍색의 천을 각각 1장씩 배열하여 슬래쉬한 경우로 명도차이가 뚜렷하여 어두운 갈색을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유형은 가장 위에 놓은 갈색 천 아래 진분홍, 남색, 어두운 붉은 보라색 천을 배열하여 슬래쉬한 경우로써 각기 다른 색상의 천이 뒤섞여 시각적인 혼색을 가능하게 하는 슬래쉬 기법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다)유형은 갈색 천 아래 노란색, 황록색, 갈색 천의 색상배열로 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가 들며 인접한 갈색과 노란색의 배열은 어두운 갈색이 밝아 보이는 효과와 노란색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유형은 갈색 천 아래 파란색, 푸른 기운이 감도는 진한 회색, 진한 갈색 천의 색상배열로 밝은 파란색이 살짝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채도 낮은 색상배열로 무겁고 중후한 느낌이 든다.



(가) (나) (다) (라)

<그림72> 색상배열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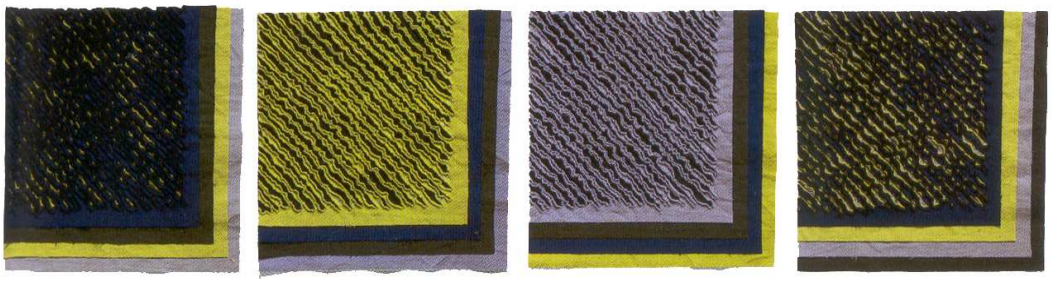
<그림73>의 색상 배열은 남색, 진한 갈색, 노란색, 회색의 각각 다른 4장의 천들이 그 위치를 각기 달리하여 전혀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으며 색상배열에 따라 현저하게 그 느낌이 달라지는 슬래쉬 기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유형은 가장 위에 남색 천을 놓고 그 아래 진한 갈색, 노란색, 회색 천을 배열하여 인접해 있는 어두운 분위기의 남색과 진한 갈색 천이 조금씩 보이는 밝은 노란색 천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인다.

(나)유형은 노란색 천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남색, 진한 갈색, 회색 천을 배열하여 어두운 색상의 배색 천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가장 위에 놓인 밝은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이 든다.

(다)유형은 회색의 천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진한 갈색, 남색, 노란색 천을 차례대로 배열하여 어두운 분위기의 남색과 진한 갈색으로 인하여 중간 톤의 회색이 한층 밝아 보인다.

(라)유형은 남색 천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노란색, 회색, 진한 갈색 천을 배치한 경우로 남색과 노란색의 대조로 강하고 어두운 남색의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게 보인다.



(가) (나) (다) (라)

<그림73> 색상배열 유형3

제 6 절 재료와 제작과정

1. 도구 <그림74>

(1) 가위 : 원단을 자르거나 슬래쉬 칼을 사용할 경우 처음의 가윗집을 넣을 때 쓴다. 슬래쉬 칼이 없는 경우에는 작고 끝이 뾰족한 가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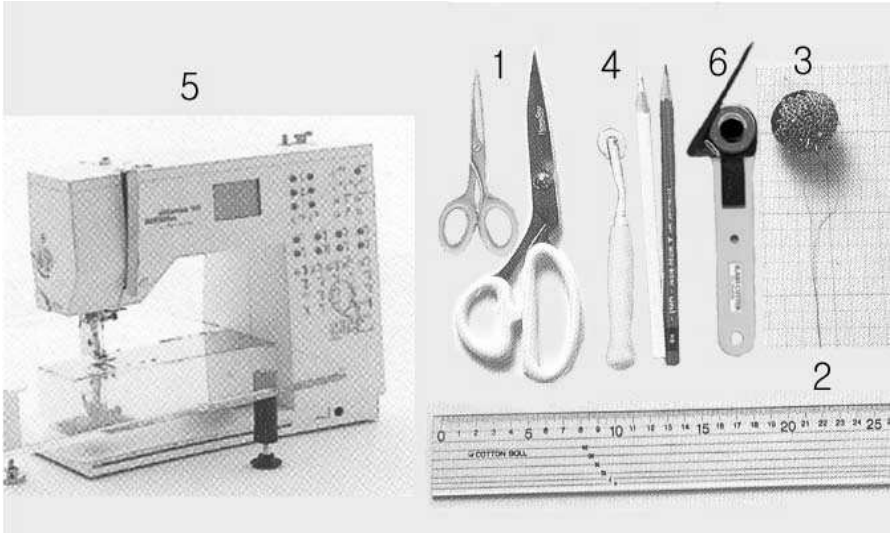
(2) 자 : 눈대중으로 박음질할 수 없을 때 박음 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며 폭이 넓은 것도 있으면 편리하다. 본을 만들 때는 물론이고 45°선의 표시가 있으면 천의 끝과 그 선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바이어스 각도를 쉽게 잴 수 있어 편리하다.

(3) 핀 : 여러 장 겹쳐진 천에 시침질 대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길이 2cm 정도가 적당하며 재봉틀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느질 하면서 빼준다.

(4) 룰렛(초크) : 원단에 재단선과 박음선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5) 재봉틀 : 천을 박음질할 때 사용한다.

(6) 슬래쉬 칼 : 가위로도 자를 수 있으나 슬래쉬 칼이 있으면 큰 작품을 할 때 편리하며 박음질 폭에 따라 받침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박음선 사이에 넣고 누르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중심을 간단하고 깨끗이 자를 수 있다.



<그림74> 슬래쉬 기법에 필요한 도구

2. 재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슬래쉬 기법에 이용하는 섬유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유재료를 이용하여 슬래쉬 기법에 의한 섬유의 재질변화와 부조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작품 및 상품의 제작에 앞서 각 재료의 특성과 슬래쉬 기법에 의한 섬유재료의 변화 및 슬래쉬 표현효과와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재료를 취사선택하여 그 특성과 표현효과를 살려 작품 및 상품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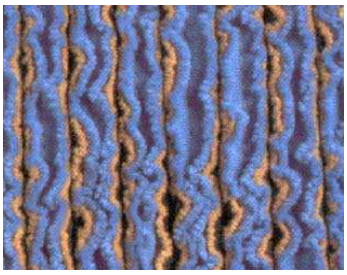
가. 면

대표적인 천연섬유인 면(광목)은 흡습성과 보온성이 우수한 실용직물로 슬래쉬 기법에는 일반적으로 올이 잘 일어나고 보풀이 제대로 부풀어 광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너무 얇은 광목은 올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원단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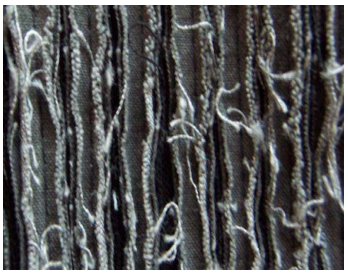
광목은 본바탕이 엷은 황갈색을 띠고, 자잘한 면실(棉實)의 껍질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염색을 위해서는 정련과 표백을 한 다음에 햇볕을 쬐어 하얗게 만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원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목은 구김이 잘 가기는 하지만 잦은 세탁에도 섬유의 손상이 적어서 실용적이며 세탁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소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림75>에서 볼 수 있듯이 적당한 두께를 가진 광목의 슬래쉬는 면의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올이 제대로 서고 보풀이 부풀어 슬래쉬 기법의 부조적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림76>은 바이어스를 이용하지 않고 올과 같은 방향으로 슬래쉬함으로써 올풀림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조적인 느낌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과 동시에 풀어진 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독특한 질감을 나타내며 바이어스 형태의 슬래쉬와는 색다른 표현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75> 광목의 슬래쉬 표현1



<그림76> 광목의 슬래쉬 표현2

나. 마

마는 아마줄기에서 채취되는 인피(靭皮)[16]섬유로 가장 오래된 섬유이며 땀의 흡수와 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 옷감으로 주로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순백색의 모시는 비단 같은 광택이 나고 삼베에 비하여 염색성이 좋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직물에 비하여 성긴 올을 가지고 있는 마직물은 슬래쉬 기법의 효과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꼿꼿한 올로 인하여 부조적 느낌이 다른 섬유에 비하여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77>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쉬 기법에 의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친 느낌이며 성긴 올의 슬래쉬 단면이 마직물의 특성상 더욱 가슬가슬하고 약간 따가워서 내수력(耐水力)과 내구력(耐久力)이 강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게 되는 제품의 이용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림77> 모시의 슬래쉬 표현

16) 식물의 1차 체관부 안쪽의 형성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관부로 수목의 줄기는 표피·피층·1차 체관부, 다시 2차 체관부가 있어 그 중 오래 된 부분은 수피(樹皮)로 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형성층보다 바깥쪽에 남아 있는 조직, 즉 2차 체관부를 말한다.

다. 견

얇고 고운 견직물인 노방은 실이 가늘고 염색성이 좋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으로 곱고 선명한 염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아한 광택과 함께 은은하게 비치는 소재 자체에서 고급스러운 멋이 흐르며 여러 장의 천을 겹쳤을 때 색상의 변화가 아름답다. 그러나 일광에 의하여 탈색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며 천이 얇아 흐늘거리기 때문에 시침질에 신경을 써야만 바느질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노방의 슬래쉬 표현은 여러 장의 천이 겹쳐지더라도 은은하게 비치는 소재로 색채조화를 이루며 얇은 직물이지만 적당한 보풀이 일어 부조효과 또한 뛰어나다<그림78>.

<그림78> 노방의 슬래쉬 표현

라. 한지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한지의 빛깔은 은은하며 색상도 다양하지만 염색이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은 직접 염색해서 쓰는 것이 깊은 빛깔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슬래쉬 기법에 이용하는 천들의 경우는 3~4장을 이용하지만 한지는 얇고 보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7~8장의 한지를 이용하여 부조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칼로 잘랐을 때 너무 깔끔하게 잘려 한지의 섬유질이 살지 않지만 물을 뿌려 털어주면 지면이 일어 한지의 느낌이 산다. 그러나 물에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찢어지지 않는다<그림79>.

물에 약하고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쉽게 구겨지고 찢기는 한지의 단점은 줌치 기법[17]을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줌치 기법을 이용한 한지 4장의 슬래

17) 줌치 기법은 보통 두 겹의 한지를 물만으로 붙이는 것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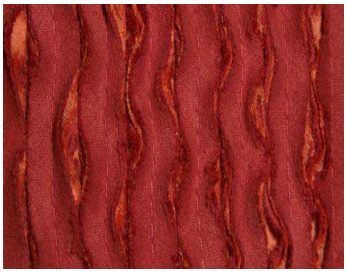
쉬 표현은 부조효과는 뛰어나지만 한지다운 느낌이 사라져 일반 한지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그림80>.

<그림79> 한지의 슬래쉬 표현1

<그림80> 한지의 슬래쉬 표현2

마. 인조 스웨이드

인조 스웨이드는 극세(極細) 섬유원사로 부직포 또는 직물이나 편성물을 만들고 여기에 폴리우레탄 수지(樹脂)를 입힌 후 표면을 기모(起毛)한 것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외관과 내부구조가 천연 스웨이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고 통기성이 좋고 가벼우며 냄새가 없는 장점이 있다. 인조 스웨이드는 천연 스웨이드와 달리 염색성이 좋아 다양한 색상이 나와 있으며 천연 스웨이드와는 달리 물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형작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작에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천연 스웨이드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풀이 잘 일지 않아 슬래쉬 기법의 부조적인 특성을 살려 적당한 보풀을 내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힘든 손질을 필요로 한다<그림81>.



<그림81> 인조스웨이드의 슬래쉬 표현

러 아주 강하게 한지를 만드는 기법이다.

사. 셀로판

재생섬유소를 종이와 같이 얇은 필름으로 만든 셀로판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광선의 투과율이 좋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색상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으로 한정적인 색상 안에서 색채 계획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셀로판은 표면이 미끄러워 재봉틀을 이용하여 박음질할 때 잘 밀리지 않으므로 뒤에서 당겨주면서 박음질을 해야 한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바늘이 통과하면서 셀로판이 찢겨지기도 하고 바느질을 잘못했을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박음질을 잘했다 하더라도 셀로판을 자를 때 원하는 방향으로의 절단이 용이하지 않으며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바느질부터 마지막 셀로판을 자를 때까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색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투명한 색상 변화와 뛰어난 광택으로 슬래쉬 기법에 의한 셀로판은 우수한 표현효과를 보인다<그림82>.

<그림82> 셀로판의 슬래쉬 표현

아. 트레이싱페이퍼

흰색의 반투명으로 된 얇은 필기용지인 트레이싱페이퍼는 제도(製圖) 등에서 원도를 투사하기도 하고, 청사진용 원고제작에 주로 쓰인다. 예전에는 특수 슈퍼캘린더(Supercalender)[18]로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무광택 상태의 것, 또는 테레빈유, 식물유 등으로 처리한 것이 주로 많다.

---

18) 증기와 압력을 이용해 종이 등에 고도의 광택과 매끄러움을 주는 기계.

트레이싱페이퍼는 다른 종이에 비하여 질기기는 하나 접히는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특성이 있고 표면이 미끄러워 셀로판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바느질을 해야 한다. 트레이싱페이퍼의 슬래쉬 표현효과는 염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광택의 흰색만으로 색상의 변화는 볼 수 없지만 여느 재료와 마찬가지로 부조효과는 뛰어나다<그림83>.

<그림83> 트레이싱페이퍼의 슬래쉬 표현

자. 신문지

신문은 시사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고 나면 쉽게 버려지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신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예에 이용하고 있다. 신문은 과거에 비하여 컬러 인쇄가 많아져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라운드펄프와 화학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신문지는 햇빛이나 공기 등에 의하여 황갈색으로 변색하기 쉽지만 신문지의 슬래쉬 표현효과는 여느 재료와 마찬가지로 부조효과가 뛰어나며 슬래쉬 단면에 물을 뿌리고 난 후 건조과정에서 신문지가 오그라들어 칼로 반듯하게 자른 슬래쉬 단면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그림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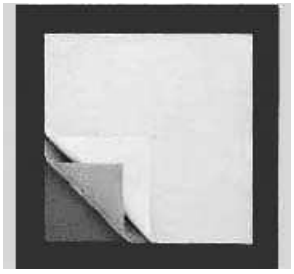
<그림84> 신문지의 슬래쉬 표현

3.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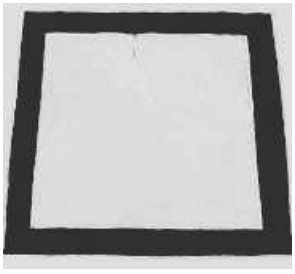
(1) 계획한 색채와 디자인대로 가장 아래에 놓이는 천은 크게 하고 나머지는 같은 크기로 재단하여 천의 색상을 잘 배열하여 놓는다<그림85>.

(2) 천은 3~4장을 주로 사용하며 재봉질 하는 동안 겹쳐진 천이 어긋나지 않도록 시침핀을 이용하여 천들을 고정시켜 둔다<그림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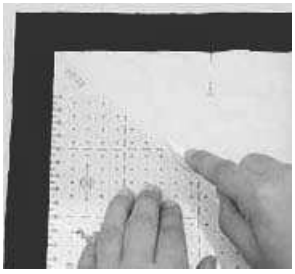
(3) 45° 각도가 되도록 천에 룰렛이나 초크 등으로 선을 그어 표시하는데, 이 각도가 45°이하가 되면 나중에 천의 올이 풀리므로 주의한다<그림87>.



<그림85> 천 배열



<그림86> 시침핀 고정



<그림87> 대각선 표시

(4) 재봉틀로 대각의 중심선을 먼저 박는다<그림88>.

(5) 중심에서부터 원하는 간격으로 일정하게 박음질 한다. 이때 재봉틀 노루발에 치수를 표시하고 여기에 맞추어 박으면 편리하다<그림89>.

(6) 박음질이 모두 끝났으면 슬래쉬 칼의 받침이 들어가기 쉽도록 가위로 박음선 사이에 1~2cm의 가윗집을 넣는다<그림90>.

<그림88> 중심선 박음질

<그림89> 전체 박음질

<그림90> 가윗집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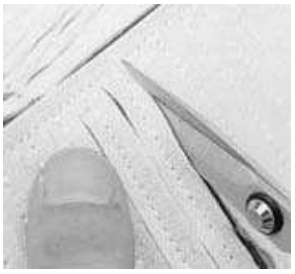
(7) 슬래쉬 칼로 죽 통과시켜 잘라준다. 이 때 맨 아래 천이 물려서 같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91>.

(8) 슬래쉬 칼이나 로터리 칼 등의 특수 기구가 없을 때는 뾰족하고 작은 가위로 잘라주고 이 때도 맨 아래 천이 물려서 같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92>.

(9) 중심부분은 뾰족한 가위로 꼼꼼하게 잘라준다<그림93>.

<그림91> 자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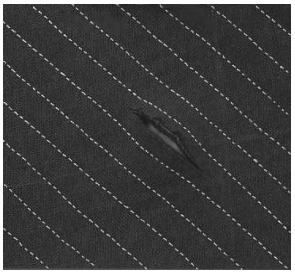
<그림92> 자르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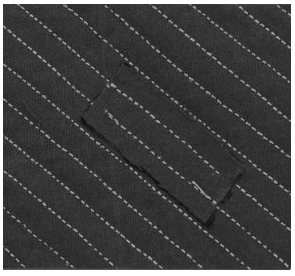
<그림93> 다듬기

(10) 만일 맨 아래 천이 물려서 같이 잘렸을 때<그림94>에는 동일한 색상의 천을 덧대어 박음질하여 수정한다<그림95>.

(11) 적당한 보풀이 일어야 하므로 솔로 문지르거나 세탁기에 넣고 물세탁하는데 실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므로 다른 세탁물과 같이 넣지 않도록 하며 건조시켜 완성한다<그림96>.



<그림94> 수정 전



<그림95> 수정 후

<그림96> 완성작

제 3장 작품제작 및 분석

현대 섬유예술은 작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예술적 시도로 인하여 그 영역을 넓혀 섬유예술을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천연섬유와 더불어 과학문명에 의하여 탄생한 섬유재료들은 다양한 기법과 함께 섬유예술의 표현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대 섬유예술의 흐름에 맞추어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과 조형성을 인식하고 조형작품 및 상품의 제작에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슬래쉬 기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조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재료에 있어서는 올과 보풀이 잘 일어서서 슬래쉬 기법에 주로 이용하는 재료인 광목에서부터 한지, 셀로판, 트레이싱페이퍼 등의 다양한 섬유재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단일의 셀로판은 각각의 색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투명한 색상의 변화는 아름다웠으나 슬래쉬에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트레이싱페이퍼와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트레이싱페이퍼로 인하여 셀로판의 투명성은 줄어들었지만 슬래쉬는 용이하였고 단일의 트레이싱페이퍼의 단조로움은 혼합사용으로 인하여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한지는 부분적으로 줌치 기법을 이용하여 질감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쉽게 찢어지는 종이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조형성에 영향을 주는 슬래쉬 형태에 있어서는 슬래쉬 기법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사선형태를 이용하는 가운데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수평선과 수직선, 직선과 곡선 등의 다양한 혼합배열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슬래쉬 기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조효과와 더불어 하드보드지와 우드락을 이용하여 높낮이의 변화를 주고 부분적인 슬래쉬를 시도함으로써 슬래쉬 기법의 부조적인 느낌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

제목 : 단청의 노래 <그림97>

재료 : 한지, 한지 서지, 먹, 커피, 염료, 우드락

크기 : 90 × 125 ㎝

궁궐이나 사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단청은 여러 가지 빛깔로 아름답고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 처음 가보았던 아담하고 정갈한 사찰은 마냥 뛰어놀던 어린아이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적막한 분위기였다. 경건하고 엄숙한 사찰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청을 처음 보고 느꼈던 감정은 조용하고 가라앉은 듯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쳐 있었고 그것은 마치 화려한 빛깔을 뽐내며 노래를 부르는 듯하여 이내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청의 노래는 바로 어린시절 단청과의 첫 만남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한지를 이용하여 먹과 커피로 채도를 낮추어 염색하고 줌치 기법으로 독특한 재질감을 살려 경건하고 엄숙한 사찰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가장 윗부분에 사용되는 한지는 줌치한 한지를 이용하여 강도를 높였으며 커피로 염색한 좁은 폭의 선은 줌치한 한지를 모두 이용하기도 하여 다른 부분과 재질의 차이를 보이며 부분적으로 우드락을 사용하여 높이에 변화를 줌으로써 슬래쉬의 부조 효과를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먹염의 어두운 분위기에 밝은 색상이 전체적으로 묻혀버려 단청의 화려한 빛깔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여 아쉽다.

<그림97> 작품 1. 단청의 노래

한지, 먹, 커피, 염료 / 90 × 125 ㎝

작품 *2*

제목 : 유년의 빛 I <그림98>

재료 : 한지, 한지 서지, 먹, 염료, 우드락

크기 : 85 × 120 ㎝

어느 누구에게나 유년시절은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이후에는 유년시절을 그리워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유년시절은 희미하기도 하지만 어느 장면에서는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유년의 빛은 뿌연 회색빛 도시공간 속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 날의 순수했던 마음을 점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느 날 선명함과 희미함이 교차되는 순간 유년의 기억에 빠져 추억을 더듬고 유년 시절의 순수성을 찾고자 하는 그리움의 감정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마치 비디오테이프 되감기처럼 돌려보듯이 유년을 회구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로 그리움의 빛이기도 하다.

한지를 이용한 작품으로 먹과 염료로 염색하고 가장 윗부분은 줌치 기법을 이용하여 한지의 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줌치 기법을 모두 이용하였을 때와 달리 슬래쉬 표현효과도 우수하였다.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유년을 표현하고자 구름문양을 넣고 V자 형태의 배열과 사선형의 슬래쉬로 강한 빛을 표현하였다.

슬래쉬 기법의 부조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자 우드락을 이용하여 높낮이에 차이를 줌으로써 평면의 화면은 부조효과와 더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림98> 작품2. 유년의 빛 I

한지, 먹, 염료 / 85 × 120 ㎝

작품*3*

제목 : 유년의 빛Ⅱ <그림99>

재료 : 셀로판, 트레이싱페이퍼, 비닐필름

크기 : 35 × 35 ㎝

유년의 빛Ⅰ과 동일한 주제로 희미한 유년의 기억과 과거를 돌아보는 현재의 내 모습을 수직형의 슬래쉬를 주로 이용하여 표현하는 가운데 사선형의 슬래쉬를 일부분에 사용하였다.

주재료는 셀로판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트레이싱페이퍼와 함께 사용하였다. 단일의 셀로판은 아름다운 광택과 투명한 색상변화로 셀로판의 미적특성이 슬래쉬 기법으로 인하여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셀로판과 트레이싱페이퍼의 혼합사용으로 셀로판의 투명성은 줄어들었으나 슬래쉬에 쉽게 찢어지는 셀로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투명한 트레이싱페이퍼의 단조로움은 셀로판과 혼합 사용함으로써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며 재료의 대조로 셀로판의 특성인 투명한 광택과 함께 재질변화 및 부조효과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림99> 작품3. 유년의 빛Ⅱ

셀로판, 트레이싱페이퍼, 비닐필름 / 35 × 35 ㎝

작품*4*

제목 : 유년의 빛Ⅲ <그림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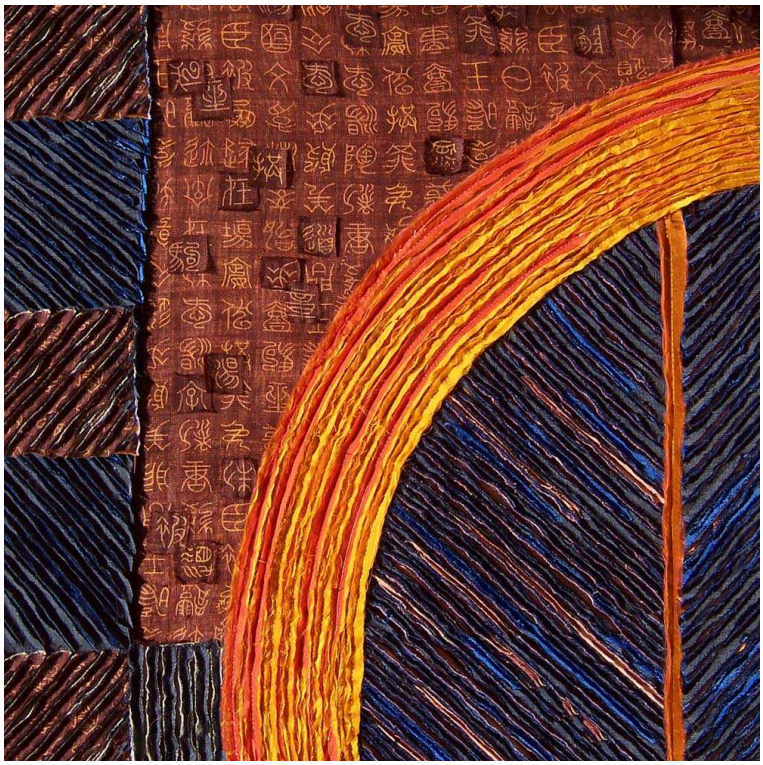
재료 : 모시, 노방

크기 : 50 × 50 ㎝

역시 같은 주제의 작품으로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어두운 정적 속에서 유년의 무지개처럼 빛나는 빛을 찾는 움직임을 수직형과 사선형, 사선 대칭형, 곡선형의 슬래쉬 형태를 혼합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재료는 모시와 노방을 이용하여 까칠한 모시와 부드러운 노방이 대조적인 질감으로 나타나며 과거와 현재를 구분 짓는다.

모시와 노방의 염색은 화학염색을 주로 이용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자연염색을 이용하였으며 이미 염색되어져 나온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무지갯빛처럼 밝은 유년시절을 나타내려고 하다보니 색상이 전체의 어두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들뜬 느낌이 든다.



<그림100> 작품4. 유년의 빛Ⅲ

모시, 노방 / 50 × 50 ㎝

작품 5

제목 : 고백 <그림101>

재료 : 광목, 한지 서지, 지퍼, 먹, 염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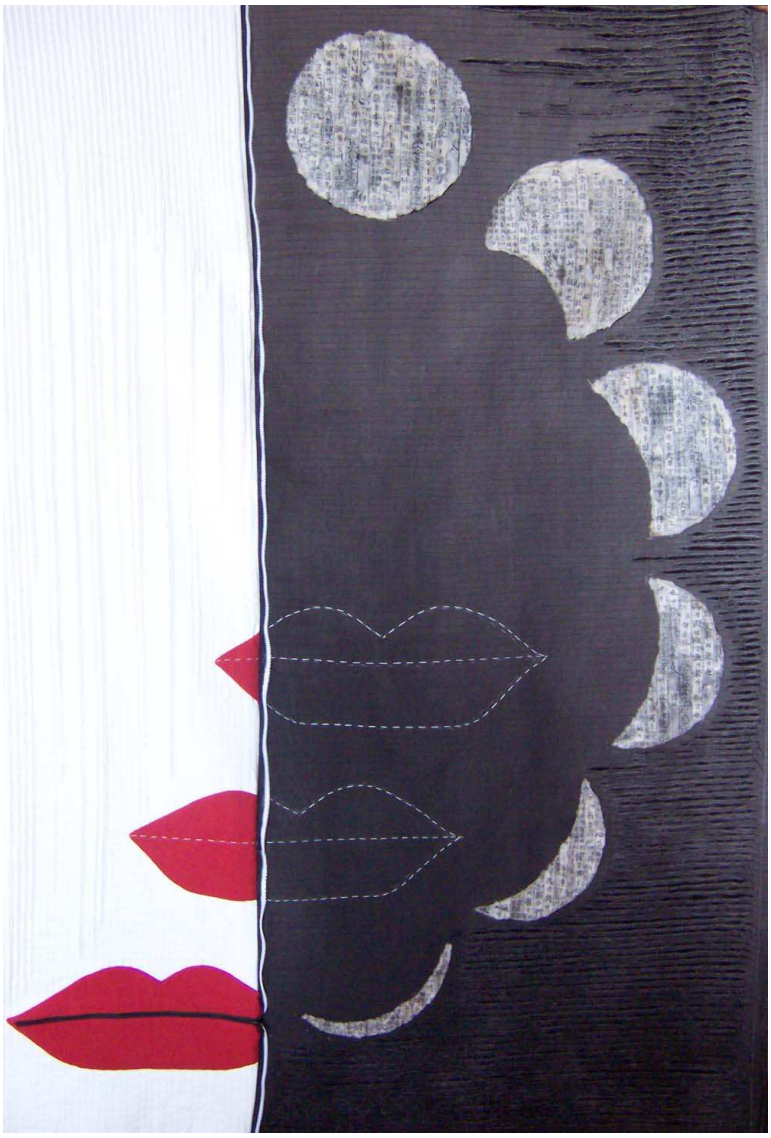
크기 : 120 × 190 ㎝

사랑의 고백이든 자신이 범한 죄의 고백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겨둔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며 많은 망설임을 갖는다. 그러나 환한 밝음 앞에서는 쉽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마음도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는 정적인 마음이 되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기도 한다.

고백은 쉽게 전하지 못하는 말들을 고요한 달빛 아래 달이 차오를수록 숨겨둔 많은 사연을 적어 달에게 띄워 보내는 마음의 편지로 수직형의 슬래쉬는 한 낮의 내리쬐는 강한 햇살을 나타내며 수평형의 슬래쉬는 고요한 밤을 나타낸다.

주재료는 광목을 이용하였는데 밝음과 어두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광목을 표백하여 순백의 색으로 환한 낮을 표현하고, 어두운 밤은 먹물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어 염색하였다. 슬래쉬 형태는 수직형의 슬래쉬로 내리쬐는 한낮의 환한 빛을 표현하고 수평형의 슬래쉬는 평온하고 고요한 밤을 표현하는데 이용하였으며 바이어스 방향으로 슬래쉬 하지 않고 올 방향으로 슬래쉬하여 올 풀림이 계속되고 있으나 풀린 올들이 늘어지면서 부조효과와 더불어 독특한 재질감을 보인다. 그리고 지퍼를 이용하여 굳게 닫힌 입술을 장식하고 밤의 어둠속에 보이지 않은 입술의 선들은 스티치 하였다.

전체적인 색상이 블랙, 화이트, 레드로 강렬한 이미지를 보인다.



<그림101> 작품 3. 고백

면, 120 × 190 ㎝

작품 *6*

제목 : 테이블 리넨[19]세트 <그림102>

재료 : 광목, 면, 자연염료(감, 오배자, 황토, 녹차 등)

크기 : 테이블 클로스 - 243 × 135 ㎝

테이블 러너 - 200 × 20 ㎝

테이블 매트 - 45 × 30 ㎝

냅킨 - 45 × 45 ㎝

냅킨 홀더 - 12.5 × 3 ㎝

서양인들의 호기심과 신비스러움으로 제시되어 온 오리엔탈리즘 인테리어 경향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전통적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전통적 스타일은 서양인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신비스러움이 아닌 친근함으로 다가오며 현대의 산업화로 인하여 점점 각박해지는 일상에서 고향의 향수가 느껴지는 전통적 소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한국 전통 스타일이 친근감을 준다고 해도 옛 것 그대로는 현대 사회 속에서 뿌리내리거나 확대될 수 없으며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미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면 소재로 실용성을 높인 테이블 리넨은 자연염색과 슬래쉬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은은한 색상과 색채조화가 돋보여 우리의 상차림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9) 리넨(Linen)은 영어에서 원래 마를 가리키지만 테이블 세팅에서는 테이블 클로스, 러너, 매트, 냅킨 등 식사에 필요한 천 종류를 모두 일컫는다.

<그림102> 작품6. 테이블 리넨 세트

광목, 면, 자연염료

작품7

제목 : 현관 매트와 슬리퍼 <그림103>

재료 : 면, 아크릴 물감

크기 : 현관 매트 80 × 50 ㎝

슬리퍼 23 ㎝

사람들이 자주 오고가는 현관은 집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아파트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 집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다.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포근한 현관 매트와 슬리퍼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현관에 따뜻한 느낌을 주며 패브릭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현관매트는 슬래쉬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사선형 슬래쉬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약간의 변형을 하여 어긋난 사선형으로 배열하여 변화를 주었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브라운의 단색으로 전체를 슬래쉬하였으며 슬리퍼는 일부분만을 슬래쉬하고 바이어스는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현관매트와 슬리퍼 모두 아크릴 물감으로 전통문양을 동일하게 넣어 통일감을 주었다. 차분한 색상과 자연스럽고 중후한 느낌으로 오리엔탈리즘 인테리어 경향에는 어울리나 밝고 산뜻한 분위기가 들지 않는 점이 아쉽다.

<그림103> 작품7. 현관 매트와 슬리퍼

면, 아크릴 물감

작품8

제목 : 핸드백 세트 <그림104>

재료 : 면, 가죽

크기 : 대 - 45 × 43 × 17 ㎝

중 - 27 × 24 × 19 ㎝

소 - 25 × 14.5 × 8 ㎝

핸드백은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생활소품이며 단일 방향의 사선형, 수평형 등의 슬래쉬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본 작품은 기존의 단방향 사선형 슬래쉬 형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어긋난 사선형의 배열로 변화를 주었으며 화려한 색상의 천을 이용하여 슬래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검은색 바탕에 굵은 흰색 체크무늬를 돋보이게 하고 심플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배색 천을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였다.

이로 인하여 슬래쉬 기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의 조화를 통한 화려함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단색의 슬래쉬와 함께 바이어스를 가죽으로 덧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캐주얼 차림뿐만 아니라 정장 차림에도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림104> 작품8. 핸드백 세트

면, 가죽

제 4 장 결 론

현대섬유예술은 다른 장르의 순수조형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탐구를 계속하면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거듭나고 있으며 종래의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섬유작가들의 창의성에 의한 기법의 개발 및 소재의 확장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섬유예술의 시대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슬래쉬 기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섬유의 재질변화와 부조적인 느낌의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섬유재료뿐만 아니라 모시, 노방, 한지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조형작품 및 상품의 연구 제작을 통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방법을 확장시킴으로써 섬유표현기법으로서 슬래쉬 기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각 재료의 슬래쉬 표현효과 및 장단점을 파악한 후, 작품 및 상품을 제작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표현재료는 천연섬유에서부터 과학문명에 의하여 탄생한 섬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소재도 가능하였으나 작품제작과정에서 경사와 위사가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조 스웨이드는 사선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질감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계획한 디자인의 슬래쉬 형태는 불가능하였다.

둘째, 슬래쉬 기법의 조형표현은 독특한 섬유의 질감 변화, 부분적인 슬래쉬와 다양한 슬래쉬 형태로 미적, 조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며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셋째, 색상 배열에 따라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슬래쉬 기법의 특성은 모든 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보풀이 잘 일어나는 면 소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아름다운 색채조화를 보였다.

넷째, 상품의 제작은 주로 많이 이용되는 핸드백과 더불어 테이블 리넨, 슬리퍼

등에 이용하여 슬래쉬 기법을 이용한 생활소품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이 슬래쉬 기법의 미적특성을 살려 여러 제품에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슬래쉬 기법에 주로 이용하는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섬유표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사와 위사가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조 스웨이드의 경우 계획한 디자인의 슬래쉬 형태가 불가능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으며 이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표현재료의 다양화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적 시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실용 목적으로 주로 생활소품에 이용하였던 슬래쉬 기법을 문화상품, 의상, 작품 등에 폭 넓게 이용함으로써 섬유표현기법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3.

두산동아출판사 편집부.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1996

박기완. 『복식용어사전』. 서울: 유신문화사, 1984.

박정우. 『르네상스 복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박현화. 『옵티컬 패턴의 시지각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슬래쉬의 기법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백영자, 류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89

송번수. 『섬유예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1989.

송번수.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4.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95.

유희정. 『Slash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이영정. 『르네상스 복식의 미의식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9.

이헌국, 이명순. 『볼커스 현대도예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6권 2호, 2003.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5.

한선주. 『수직』.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2.

한순자, 서옥경, 이민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2001.

Black, J. Anderson, Madge Garland . 윤길순 역. 『세계 패션사』. 서울: 간디서원, 2005.

Lambert, Patricia, Mary G. Fry, Barbare Staepelaere. 정현경 역. 『색채와 섬유』. 서울: 지성의 샘, 1995.

Max Von Boehn. 이재원 역. 『패션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1998.

Payne, Blanche. 이종남 외 3인 역. 『복식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丹野郁, 原田二郎. 이희현 역. 『서양복식사』. 중앙기능계발연구사, 1982.

黑羽志壽子. 『ストレ―トスラツシュキルトの世界』. 東京:文化出版局, 1999.